

보스톤한인교회 소식지
KCB Newsletter
Vol. 55 No 2
2023.7.2.



2023 SUMMER 여름
한울타리

편집: 홍보위원회

Contents/ 목차

| | |
|--------------------------------|----|
| 권두언 | 2 |
|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 심포지엄 | 3 |
| 창립 70주년 기념 사진전 | 6 |
| 예배 예술 위원회 | 10 |
| 쉐마 행사 위원회 | 11 |
| 건물 관리 위원회 | 12 |
| 홍보 위원회 | 13 |
| 교인 2부 위원회 | 14 |
| EM/BM service | 15 |
| 정의 평화 환경 위원회 | 15 |
| 해바라기 유치동부를 마치면서 | 16 |
| 중고등부 소식 | 17 |
| 청지기 청년 1부 | 18 |
| 그루터기 청년 2부 | 19 |
| 부부청년부 | 20 |
| NCKPC 참석 후기 | 22 |
| 에스더 여성회 | 23 |
| 에스더 여성회 한가족 예술제 감사인사 | 24 |
| 마리아 여성회 | 25 |
| 권사회 | 26 |
| 상록 기도회 | 26 |
| 집사회 | 27 |
| 구역소개 시리즈 - 북동 구역 | 29 |
| KCB 교우 소개 코너 - 김한나/조준호 장로님 가정 | 31 |
| 교인동정: 정든 보스톤한인교회를 떠나며 - 안세진 집사 | 33 |

Green Christmas

책상에 앉아 창문을 보니 푸르른 색이 저의 눈을 현란케 하였습니다. 화려한 푸르름을 만끽하며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더없이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지금의 지구 반대편 곧 남반구는 어떨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방 떠 올랐습니다. ‘양상한 가지에 흰 눈이 쌓인 겨울이겠지...’ 계속 생각이 난 것은 ‘그러면 여기가 White Christmas라면 거기는 Green Christmas겠네...’ 이처럼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색깔은 지구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다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록색과 하얀색.

생각은 이어집니다. 저희 교회가 69번 White Christmas를 맞이했다면 남반구에서는 69번 Green Christmas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곧 북반구의 많은 사람들이 평생 White Christmas를 보내고 있고 반대로 남반구의 많은 사람들이 평생 Green Christmas를 보내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다면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색깔 이외에 또 다른 색깔이 있음을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진실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세월이 갈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한 가지 단점은 그대로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가끔 시간을 내서 우리 눈에 익숙하지 않은 색깔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푸른 잎새에 하얀 눈이 쌓여 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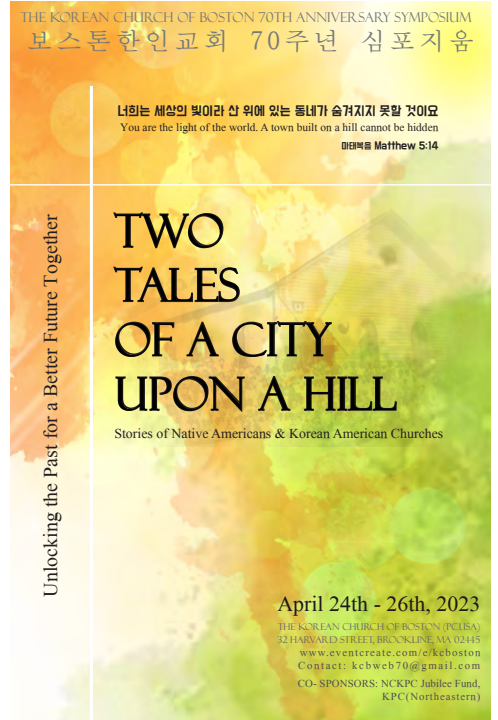


저희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던 심포지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4/24 (월)-26(수)- 2박 3일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보스톤에 세워진 한인교회로써 그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에 감사하며, 70주년 기념 행사의 주제인 “With Gratitude”의 마음을 안고 심포지움을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이 심포지움을 통해, 한국 땅에 기독교를 전해준 미국 선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다각도로 기독교 선교 역사와 오늘의 Korean-American 들의 역사와 현실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심포지움을 준비하였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Korean-American 들이 1세, 2세, 3세와 더불어 이 미국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더 풍성한 삶을 펼쳐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역사 학자들과 교단 활동가를 초청 강사로 모셨고,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노회원,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NCKPC)와 보스톤 지역의 한인 목회자들과 영어 목회자들, 신학생 등 다양한 청중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심포지움은 첫째날(24일) 오후 5시에 사진전시팀이 열심히 준비하신 선교 역사 사진 전시회를 시작으로 풍성한 만찬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음식이 정성스럽게 차려진 만찬에서는 140여명 정도가 참석하였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곧이어, 심포지움 강연들이 열렸는데, 초청 강사들의 알차고 감동있는 내용의 강의가 있었고, Q & A 시간에는 2세 목사님들의 진솔한 질문들로 알찬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둘째날 2번의 주제 강연과 패널 토의 그리고 마지막 날의 그룹 토의 시간까지 참가자들의 열띤 관심으로 유익한 나눔의 시간을 갖고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심포지움 강사로는 2세로서 한국이민 역사를 연구하는 Dr. Jane Hong, 그리고 본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Dr. Paul Cha, Dr. David Eunil Cho, 그리고 PCUSA 총회장을 지내셨던 Elder Elona Street- Steward께서 섬겨주셨고, 패널 토의 사회는 총회에서 Diversity 를 위해 일하시는 Rev. Samuel Son 이 맡아주셨습니다.

심포지움을 마치며...



미 원주민의 아픈 역사적 이야기, 한국에 복음을 전한 미국장로교 초기 선교사들이 이야기, Korean-American 의 과거 역사와 미래를 향한 소망을 역사적 시각에서 다룬 강연들을 심포지움을 통해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자들께서 심포지움을 통해 도전받고, 채워지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고 많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심포지움을 위해서 심포지움 위원으로

섬겨주신 분들과 기도와 후원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심포지움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 과거를 함께 바라보며, 회개하며, 서로 용서를 빌며, 용서해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설계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심포지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

70주년 행사위원회 위원장: 한문수 장로

심포지움 Co-Chairs: 윤경문 목사, 구용한 장로

심포지움 위원회 위원:

등록팀- 손영권, 사공현일 집사

만찬팀: 채진병, 최학수 집사

운송팀: 김수영 목사, 정광근 장로

홍보팀: 김승욱, 서정희,

이재익, 양수연 집사

방송팀: 김영돈, 이지용 집사

당일행사팀: 윤병준, 이주원 집사

위원회 외 섬겨주신 분들:

포스터: 배광현 집사

만찬 메뉴/셋업/Deco: 김한나 장로, 이성혜 사모, 최안나 집사, 이경자 권사, 윤영자 권사

안내/환영: 장양술 장로, 강상철 장로, 배경미 전도사

통역자: 이해원 집사, 조성경 교우

방송실 도움: 이요한 목사, 부지형 교우

70주년 Eco Bag 준비: 박재미 집사 (70주년 행사위원)





심포지움 강연들은 교회의 YouTube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 YouTube 링크 : www.youtube.com/@KoreanChurchofBoston

사진자료: <https://thekoreanchurchofboston.smugmug.com/SymposiumPicture/>

웹사이트: WWW.EVENTCREATE.COM/E/KCBOSTON

심포지움 관련 기사: www.presbyterianmission.org/today/2023/05/03/where-do-we-start-our-story/
Panel Discussion의 Moderator로 섬겨주신 Rev. Samuel Son (Manager of Diversity and Reconciliation at Presbyterian Mission Agency) 이 PCUSA Newsletter에 심포지움을 참석후 “Where Do We Start Our Story?”란 제목의 글을 게재하셨음.



보스톤한인교회 70주년 기념 사진전

70주년 기념 사진전 오프닝 기도문

김문소 은퇴장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16:3)

역사의 주관자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140년 전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조선땅에 뿌린 사랑의 씨앗이 멋지게 자란 모습을 보는 Mission in Korea 와 1903년 미국 최초의 하와이한인교회와 1953년 보스톤 최초의 보스톤한인교회 등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는 Korean-American Christian in the US 사진 전시회를 시작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씨앗을 뿌린 파란 눈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배들께 감사와 축복을 기원합니다.

한 많은 한민족 오천 년 역사처럼, 수백 년 간 자기땅 빼앗기고 학살되고 노예같이 살아온 아메리카 원주민을 생각하며 원주민을 위로하고 축원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10월 ‘콜럼버스 데이’를 ‘아메리카 원주민의 날’로 선포하여 원주민이 주권을 회복하고 고유한 문화를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메리카 땅에 먼저 온 백인들에 의해 늦게 온 Asian-American 특히 Korean-American 들이 인종적 정치적 차별을 받아왔지만, 이제 제2의 희년을 향해 살아갈 한인후손들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 위에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모든 민족과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전시된 사진전은 역사적 자료이고, 역사는 삶의 방향을 보여주오니, 주님이시여, 주님 영광만 드러나는 전시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진 전시회를 준비한 여러 위원들과 관람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축복을 기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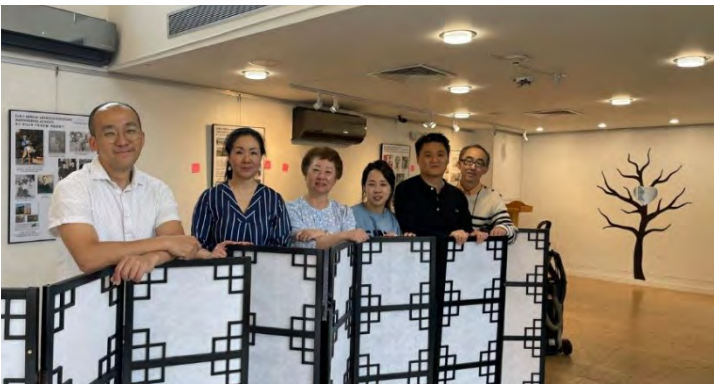


3세대가 함께 테이프를 끊고 시작된 창립 70주년 기념 사진전은 4월 23일 오프닝 세레머니를 시작으로 지난 두 달 여간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고작 16개의 판넬 속에 140년의 시간을 담아내는 일이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몇 안되는 사진전 위원들의 엄청난 수고와 시간들이 모여 이루어낸 정말 말도 안되는 기적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강도 높게 진행되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특히 사진들을 액자들에 넣어 벽에 달던 날, 수없이 들리던 짹그랑 소리... 40여 개의 유리 판넬들이 위원들의 손만 닿으면 차례차례 생을 마감하는데, ‘주

님 16개만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기도응답이었던지 정말 16개만 딱 남겨주시던 하나님. 오프닝 전날 밤까지 드레프트로 있던 사진 설명 글들에 당신의 생명을 불어 넣어 읽는 이로 하여금 당신의 호흡을 느낄 수 있게 바꿔버리신 하나님. “도대체 이 많은 일들을 왜 굳이 이 바쁜 때에 하시려는 걸까? 라는 질문을 수 없이 반복하게 만드시던 하나님. 반복하여 질문하다 보니 어느새 사진전 포스터가 나오고, 판넬 수작업이 끝났으며, 테이프커팅을 거쳐 교우님들과 많은 외부 손님들께 사진전이 공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로부터 감사 인사와 섬김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또 한 번 체험합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계속될 이번 사진전을 통해 이민 1세대에게는 가슴 벅찼던 첫 복음의 감동과 열정을 소환시키고, 자라나는 2세 3세대에게겐 생소하지만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찾기에 도움이 될 한국



기독교 역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아울러 3세대가 함께 우리들 각각의 세대에 임재하신 하나님과의 인연과 복음에 대한 열정/감사를 나누며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사진전을 보시고 느끼신 감상문을 홍보위원회로 보내주시면 다음번 한울타리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사진과 자료들을 수집한 것도 놀랍고, 또 시대와 행사들을 따라 정리하여 전시하신 손길들의 수고와 열정에 먼저 큰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넘쳤다.)

Missionary Group Photos를 볼 때 두가지 감동이 왔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한국을 사랑하셨는지, 비천하고 가난한 나라에 1890년 전후로 Allen, Underwood, Moffett, 쟁쟁한 선교사님들을 선두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다. 그들이 평양 Station 에 모여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대단했다.

그 분들이 교회를 세우고,(평양의 장대현, 산정현교회 등), 신학교를 세워 목회자들을 배출하며 우리 한국을 바닥부터 흔들어 깨웠다. (1907 년의 회개와 대 부흥). 우상과 잡신의 나라, 일본이 큰 야심을 먹고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로 합병하여 통채로 먹고, 36년 동안을 압박 당하게 될 나라의 장래를 하나님께서는 신앙으로 준비시켜 주셨다. 비록 1940년 전후로 일본이 많은 선교사님들을 강제로 추방시켰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복음의 불이 삼천리 강산여기 저기에 타고르고 있었다.



Early Women Ministry

이 사진들에서 놀라운 것은 1934년 평양 여성 사경회에 2,000명 이상의 여성들이 흰 저고리, 흰 머리수건 까만 치마를 입고 며칠씩 걸어서 참석 한 것이다. 그 옛날에는 사경회가 적어도 일주일은 되었다. 역시 한국의 여성들이여—당신들은 빌립보성의 루디아 같은 여성들입니다.

Early Korean Immigrant Church & Community.

1906-1907 하와이로 이민온 장한 한국인들, 그곳에서도 Kauai, Maui, Honolulu 섬마다 교회와 주일학교를 세워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개척한 사진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모여 사진을 찍었네—사랑스럽고 능능한 모습들이 뿌듯했다.



(1903년 호놀룰루 한인교회)

Early KCB Community.

1953년 잊을수 없는 6.25가 끝나던 해. 전쟁 끝에 우리나라는 참담한 아픔과 슬픔에 정신이 없었다.

이때 Boston 에 이민 교회가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과 소망의 역사로 보였다. 한국을 떠난 이민자들에게 주시는 큰 사명을 다짐하며 밝은 미래를 꿈꾸는 사진들이었다.

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적혀 있을것이라고 믿으며, 언젠든, 어디에서든 지금의 우리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붙들려 사는 행복한 이민자들임을 생각하며 가슴 깊이 차 오르는 뿌듯함을 느꼈다. 그리고 평양에서 (미스바에서처럼) 다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1955년 Marsh Chapel 에서 3.1절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박대선 목사와 교우들

(우리는 교회에서 이 귀한 사진들과 글들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가 없어서 사진을 찍어 왔다. 그래서 집에서 다시 크게 확대해 들여다 보며 그나마 이 글을 쓸 수 있었음을 고백한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KCB 70 주년 기념 사진전을 보고서

김문소 은퇴장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7)

사진전 참으로 잘 감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여 목숨까지 내놓고 한민족에게 선교한 덕으로 이곳 미국땅까지 신앙을 이어온 보스톤한인교회 70주년 사진 전시회를 보면서 자료를 찾느라고 수고한 노력과 그 여정 중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저도 느낍니다.

많이 들어 본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렌, 모펫 이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민족에게 선교를 했고, 일제 치하 마지막인 1942년에 자기 나라로 추방당한 사실은 새롭습니다.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 및 한글 성경을 보급하여 여성들 문맹 퇴치를 한 것 등이 특히 눈에 띄이네요. 참으로 가슴 아픈 순교자들의 모습, 가슴 뛰게하는 서재필, 이승만과 맥아더, 안창호 선생들의 모습,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지역의 초기 교포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돕는 손길, 인종 차별을 고발하는 책 발간 운동 및 우리 교회의 초창기 모습 등등.

이 자료는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의 발자취를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적 자료라고 생각되어 홍보위에서 ‘보스톤한인교회70주년 사진전시회’ 소책자로 내도 좋겠습니다. 또 4월에 가진 심포지움 유튜브 영상 자료도 첨가해 함께 알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 비상 상황이 3년 만에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간 동안 교회가 잘 건널 수 있도록 수고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어느덧 봄을 지나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찬양대, 찬양팀, 슬라이드/방송팀, 통역팀, 예배위원들, 그리고 예배의 순서를 맡아주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4월 7일 성금요일 예배 특별찬양 모습

1. 주일 1, 2부 예배와 토요 아침기도회: 계속해서 매주 1,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현장 참여인원은 평균적으로 1부는 80-90명, 2부는 130명 정도 됩니다. 4월 23일 주일예배는 심포지움의 강사로 오신 Elona Street-Stewart 장로님께서 (직전 교단 공동 총회장) 설교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요일 오전8시에 본당에서 아침기도회를 가지고 지역사회, 교회, 개인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 성금요일 예배와 부활절 예배: 4월 7일 저녁 7:30 에 본당에서 성금요일 예배가 찬양대와 챔벌기악이 준비한 특별찬양과 함께 드러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장에 참여했고, 유튜브 온라인 동영상으로 현장중계도 되었습니다. 4월 9일 주일예배는 부활절 예배로 성만찬과 함께 드러졌습니다.

3. 기타 소식

찬양대 - 지난 2년간 메조 소프라노 솔리스트로 섬겼던 김우영 교우가 졸업하고 타주로 이주했습니다.

찬양팀 - 3월 25일 (토요일) 웨마의 밤에서 찬양을 인도하며 섬겼습니다.

“쉐마의 밤”은 유초등부, 유스그룹, 청년부, 부부청년부, 장년부 각 세대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익숙해진 부서별 예배와 바운더리를 잠시 떠나 3세대가 서로의 문화와 생각, 그리고 삶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쉐마의 밤은 “회복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3년간의 긴 여정 동안 소원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동안 잘 이겨내고 버티도록 지켜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최현구 장로님이 이끄시는 KCB 찬양팀과 김수영 목사님께서 리드하시는 쉐마찬양팀이 합동으로 찬양과 기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꼭찬 무대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위로의 멜로디가 울려 퍼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찬양을 통해 팬데믹 동안 소원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개인과 가족의 신앙을 회복하고, 성도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하고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주었던 가족과 친구,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6월 쉐마의 밤은 회복과 위로를 받은 성도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섬김과 나눔”을 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새교우들과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교우들에게 교회 전반적인 조직과 각 위원회를 소개하고 섬김 사역을 하는 공동체 모임을 소개하여 많은 성도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한 이를 통해 올해 우리교회가 새로운 역사로 써나갈 70주년 행사를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려고 준비하였습니다.



이소는 집사님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한 “우리는 KCB예요” 순서는 헤더 장로님이 준비하신 대본을 통해 우리교회 각 위원회들의 핵심적인 활동을 유머러스하게 잘 표현하였고, 위원회의 멤버들은 온몸을 다해 각 사역의 중요성과 섬김의 즐거움을 어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청년1-2부의 합동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아버지를 향해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감사하며 뜨겁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서는 “한 몸, 여러 지체 (One body with many members)”라는 주제로 교회 내에서 각 위원회가 유기적으로 함께 일함으로 아버지의 사역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우리 모두 힘을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감당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쉼마의 밤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교우님들의 섬김과 기도로 쉼마의 밤은 앞으로도 “3세대를 이어가는 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물 관리 위원회

임재관 장로

보스톤한인교회 건물관리 위원회에서 평안을 여쭙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무척 벅칩니다. 하지만, 활동이 많아지면서 여러가지 쓰레기 문제와 환경 문제, 그리고 설치류(큰 쥐 종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팬데믹 동안 저희 교회를 안식처로 삼고 있던 설치류들이 놀이터 지하로 파고 들어서 지하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설물로 인한 냄새와 위생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와 협조를 위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 페스트 컨트롤 회사에서 그림에 보이시는 검정색 박스를 교회 건물 주변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설치류를 잡기 위한 트랩이고 그 안에는 독극물이 들어 있습니다.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위치도 변경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음식 쓰레기들이 흘러나와 냄새가 나고 쥐들이 모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 쓰레기를 버릴 때는 반드시 두번 패킹해서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에는 음식물 쓰레기용 봉투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음료를 다 드시지 않은 상태로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를 일주일간 모아서 수거하는데 이럴 경우 음료로 인한 부패가 일어나고 악취와 함께 쥐들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반드시 음료를 완전히 비우고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현재 쓰레기 수거장과 교회 외부 주차장 쪽 청소도구 보관함에서 설치류 배설물이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을 함께 청소하면 좋겠습니다.
5. 설치류가 지하로 들어가는 구멍들이 교회 주변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모두 트랩이 설치되어 있고, 쥐들을 쫓아내는 미끼들을 구멍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차후에 쥐들이 모두 나가면 그곳들을 모두 봉쇄할 예정입니다. 미관상 좋지 않더라도 조금 참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놀이터 바닥에 살고 있는 쥐들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놀이터 바닥 공사를 진행해서 설치류를 박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생활하고 함께 성장해 가는 어머니 교회를 깨끗하게 관리해서 아이들이 땅에 떨어진 것을 집어 먹어도 안전한 곳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조금씩만 주의하고 노력하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홍보 위원회

이혜승 장로

역사편찬위원회와의 협력하에 시작된 창립 70주년 기념 사진전을 리드하여 많은 교우님들과 외부 손님들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깊은 사랑을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수고해주신 많은 교우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본 교회의 대외 홍보 협조요청에 따라 시민협회에 본 교회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참여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간에서 수고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홍보위원회는 교회 각 부서의 홍보를 담당하는 구심점 부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쉼마의 밤 홍보 영상과 70주년 사진전 홍보 영상 등을 제작하였고, 현재 8월에 있을 전교인 수양회의 홍보용 포스터와 영상 및 프로그램 책자 등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벤트나 부서/구역 홍보가 필요한 부서께서는 홍보위원회로 연락주시면 함께 공조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위원회에서 함께 섬기실 분들 (사진기자, 영상기자, 편집자 등)을 찾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보스톤한인교회 전교인 여름수양회”

8월18일 금요일 저녁부터 8월20일 주일 오후까지 2박3일동안 뉴햄프셔에 있는 Pilgrim Pines Camp & Retreat Center에서 보스톤한인교회 전교인 여름수양회가 열립니다. 5년 만에 돌아온 이번 여름수양회에는 뉴저지 찬양교회의 노승환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내 사랑 이민교회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총 여섯 번의 말씀잔치를 열어주실 계획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전교인여름수양회에 보스톤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을 초대합니다!

보스톤한인교회
전교인 여름 수양회

내 사랑 이민교회여!

수양회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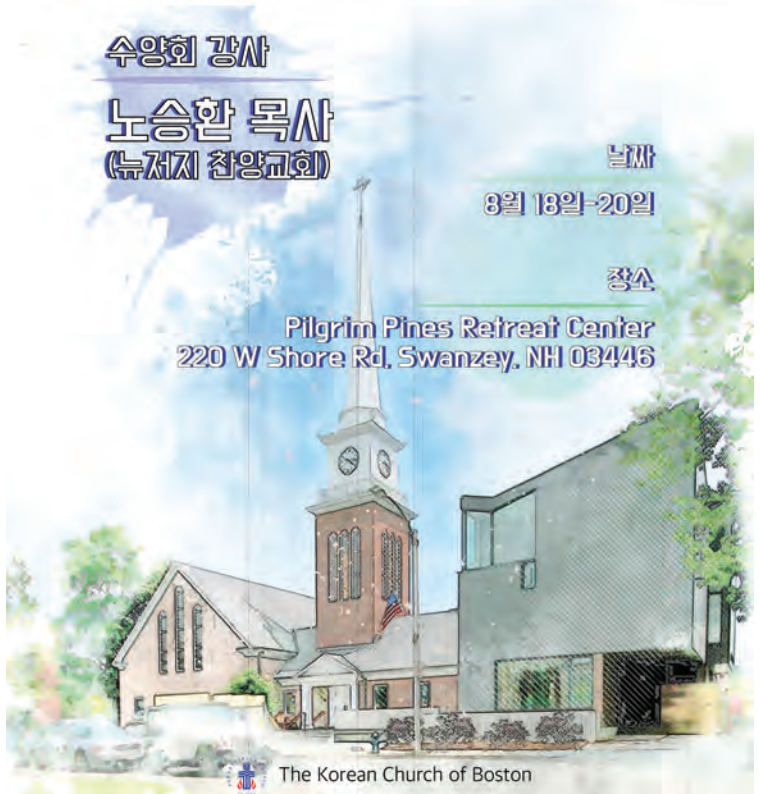
노승환 목사
(뉴저지 찬양교회)

날짜

8월 18일-20일

장소

Pilgrim Pines Retreat Center
220 W Shore Rd, Swanzey, NH 03446



Last October, we started EM/BM worship service, so it has been 8 months, we had some challenges and mostly blessings for all the participants at the worship service. Rev. David Eunil Cho, the main preacher and other guest preachers (Rev. John Sweet & Rev. Yohan Rhee) for the worship service have provided sound & good sermons that will help spiritual growth of EM/BM members. Recently, as the summer season is starting, Rev. Cho left to travel to Korea and different countries to continue his teaching, we had to find guest preachers for our worship service. As a small group with limited resources, finding guest preachers is the greatest challenges of all. One Sunday in May, we cancelled our worship service since we couldn't find a preacher. But as we move along, the worship service would get stabilized with God's blessings. Another important part of our worship service is a praise leader. Thanks to the number of volunteers (John Bu, David & Esther Yoon, and Sung Ahn), we will have stable praise leadership. As more people in our church are aware of and pray for EM/BM ministry, God will help us to grow in faith individually and as an EM/BM congregation. Next service will be on 7/9 . God is good!

정의 평화 환경(정평환) 위원회

안성완 장로



정의 평화 환경 위원회 (위원장 안성완 장로) 의 쓰레기 다이어트 프로젝트,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입니다.

Please bring your own cups and tumblers to reduce waste!

10월 1일, 정의 평화 환경 주일을 맞이하여 “책 바꿔 읽어요”와 “골프 용품 나눠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책장 혹은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 책들과 골프용품들 주변분들과 나누고 바꿔보는 행사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해바라기 유초등부를 마치면서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스톤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11년 동안 유초등부를 매주일 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보스톤 한인 교회는 나의 정체성의 한 부분이며 항상 의존할 수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보스톤 한인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쁘게 봐주시는 권사님들, 맛있는 밥을 먹여주시는 집사님들, 보스톤 한인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의 5학년 친구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함께 다니던 친구들과 몇 개월 전부터 다니기 시작한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썬플라워를 다니면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모두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선생님들도 만났습니다. 썬플라워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의 답을 알고 계시고 항상 세상의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유스 그룹으로 올라가는 것은 떨리고 기대되지만 항상 함께하던 친한 친구들과 함께 가니 마음이 좀 편합니다. 아마도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거라 생각되지만,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선배들과 같이 또 다른 환경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마치 Nursery 반으로 올라갈 때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길이 기대되고 떨립니다.



Ransom Youth Group (RYG) has been blessed to celebrate so many events and people during the spring semester of 2023. From the spring retreat to photographing polaroids of mothers for Mother's Day, RYG has celebrated and reconnected as a community.

One of the first events this spring was the Easter Egg Hunt. Students and teachers had a great time outside, enjoying the brisk, 50-degree weather and the chance to bond as a community.

This year marked the first overnight retreat that RYG has had since 2019. Our beloved sixth, seventh, eighth, and ninth graders got to experience their first overnight retreat April 14th to April 15th. Class of 2022 alumni Edmund Lee and guest speaker Pastor Jane came and helped our students have a wonderful time.



RYG students and teachers at the Grottonwood retreat site.

We got to interact with and show appreciation for the mothers in our community on May 14th. The students worked together to create picture frames, decorating it with flowers and leaves and flowing cursive. Thanks to Ana 집사님's initiative, we were able to have a wonderful time with family, friends, and the community of KCB.

This semester also consisted of many bittersweet goodbyes. John Bu, Soo Ahn, June Kim, Joanne Lee, and Heather Lee all stepped down from their positions this fall.

We were blessed to have Jeong Eun Taek and Seo Jung Hee join the volunteer team. If anyone is interested in joining the staff, please email elder Sang KAng, uno@sangkang.com for more information.



RYG students and staff at the playground

In preparation for their transition to the Youth Group, the fifth graders of Sunflower Ministries came downstairs to experience the RYG service for the first time. After worship and the sermon, students got to play games to build bonds and get to know their new friends. We cannot wait to welcome them into RYG in the upcoming fall.

지난 사순절과 봄학기를 보내면서, 청년1부는 [ego eimi: 예수님은 누구신가?]와 [빌립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를 주제로 금요일 모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주일모임에서는 [사도행전]을 교재로 소그룹 성경공부를 가졌습니다. 여름을 지내면서는 각각 [예배: 주님 앞에 서있네]와 [민수기] 말씀으로 금요일 모임과 주일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 4월 둘째 주일(4/9) 정기 총회를 갖고, 올해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청년1부를 섬길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했습니다. 회장은 박현석 교우, 부회장은 이효준 교우가 선출되었는데, 앞으로 꾸려질 새로운 임원진들에게도 성도님들의 따뜻한 기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팬데믹 기간을 포함해서 지난 3년 동안 청년1부 회장으로 섬겨온 안성민 교우와 현 임원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전합니다.

축하와 아쉬운 마음을 함께 갖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봄학기를 마치며, 여러 청년1부 교우들이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보스턴에서 진학, 취업을 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타주로 이주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은진(OR, 취업), 송하영(Boston, 진학), 안성민(Boston, 진학), 안수민(Boston, 진학), 오해림(PA, 진학), 이송민(가을 졸업), 이효준(가을 졸업), 정예형(NY, 진학), 조영은(Boston, 취업)

작년 가을학기부터 청년1, 2부가 격주로 금요일 모임을 연합집회로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연합모임이 팬데믹 이후의 목회적 관점으로도 장점이 많으며, 지난 두 학기 동안 좋은 점도 많이 쌓여 왔기에, 여름을 맞이하며 매주 연합 금요일 모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청년들이 되도록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난 몇 달간 청년 2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여러가지 행사와 모임을 가졌습니다. 먼저 5월 14일에는 정기 총회를 갖고 새 회장단을 선출하였습니다.

회장으로 임주광, 부회장으로 김은총, 총무로 천동혁 형제가 선출되어 앞으로 2023-2024 회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올해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5월 19-21일(금-주일)에 뉴햄프셔의 Pilgrim Pines에서 가졌습니다.

“Guidance Through Faith: Practicing Discernment while navigating Christian Life”란 주제로, 김강산 목사님(찬양교회 부목사)을 모시고, 청년들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 인도를 통해 맘껏 찬양하며 기쁨을 누렸습니다.

5월부터는 매주 금요일예배를 청년 1부와 함께 연합예배로 드리기 시작하였으며, 4월 23일에는 청년 1부와 함께 심포지움 패널토의 Moderator로 오셨던 Rev. Samuel Son (Manager of Diversity /Reconciliation at PMA)를 모시고, “Why Church”란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최근 청년 2부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공동체의 친교를 도모하고, 더 자주 모이기 위해 4개의 동아리 모임을 만들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Tennis(김현모), Golf(김현모), Movies(이준석), Games/KCB Discord Chat(백현). 부서간의 연합을 도모하는 의미로 청년 1부와 부부청년부에게도 open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년 2부의 축하할 소식으로는 5월에 5명이(김우영, Matthew Taitano, 백현, 부지형, 윤대원)이 학업을 잘 마치고 졸업하였고, 김우영 자매는 LA로, Matthew Tainano 형제는 인디안나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 1부 인턴으로 섬기고 있는 청년 2부 소속 정은택 전도사가 6월 한국에서 축복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부부청년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엡 2:19-22) 표어 아래 팬데믹의 끝자락인 2분기부터는 월 3회 이상 대면으로 모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 주는 김수영 목사님의 은혜 넘치는 설교 말씀과 함께하는 말씀사경회로, 다른 한 주는 형제자매모임, 새가족 환영회, 베이비샤워 등 교제를 통한 기쁨의 은혜를 나누는 형식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부부청년부를 찾아 주신 박종아/이겨레, 김호영/박영룡, 김학조/박새미, 송인우/최연경, 장유진/왕희연 가정과 새가족 환영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청년부 여러 가정에 새생명을 허락하심을 기뻐하며 함께 축복하는 베이비샤워도 있었습니다. 임극유/이수경 가정(특녀 임하리 3/11), 유우진/김정인

가정(특녀 Elena 5/13) 새생명을 출산하셨고, 하반기에도 여러 가정의 출산이 예정되어 있어 함께 기쁨을 나눌 시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가족예술제에는 “축복 (The Blessing)”이라는 곡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대를 이어 지키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23년부터는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사경회 시 아이들을 위한 놀이교실을 시작하였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는 아이들과 Egg hunt를 하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MIT에서 로봇을 연구하고 계신 김홍민 형제께서 Mini Cheetah robot을 가지고 오셔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9일부터 13일에는 pandemic으로 인해 3년 여간 진행하지 못했던 부부청년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보다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부청년부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CKPC(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총회를 다녀와서...

김한나 장로(총대)



지난 5월 23일(화) 부터 26일(금) 까지 제 52회 NCKPC 정기총회 및 전국 대회가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주제는 “Restart -새로운 시작: 흠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사 11:2) 이였고, 지난 3년간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모였던 총회를 대면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 다시 시작하는 의미를 품고 있다.

주 강사로는 한국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전 퀸지영생교회 담임목사)와

AEU (American Evangelical University) 총장이신 이상훈 목사가 수고해 주셨다. 김경진 목사님은 수, 목요일 저녁집회때 “마리아야 나오라” (요 11:17-30) 와 “무엇이 보이느냐”(막 8:22-26)의 제목으로 두 번의 설교말씀을, 이상훈 목사님은 수, 목요일 주제강의로 “선교적 운동을 위한 사역 패러다임” 과 “선교적 교회와 리더십”의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셨다. 그리고 3번의 워크샵 이 박길재 목사(포스트 모던 시대의 신앙적 위기와 신앙교육), 김은주 목사(한류 문화와 교회의 관계성), 강현구 목사(English Ministry and New Worshipping Communities)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 외에 사무총회가 진행되었는데 그 시간 동안은 전 회의록 낭독, 감사 보고, 결산 보고, 예산안 보고, 헌의안 보고 등으로 1회 모임, 그리고 2회 모임 때는 각 위원회 보고, 임원 선거, 임원 교체와 서약,퇴임사, 취임사와 신 안건 등의 진행을 하였다. 신임 총회장: 권준목사(시애틀형제교회)/ 차기 총회장: 박상천 목사(뉴저지 소망교회), 평신도 부총회장: 엄재용 형제/ 서기: 고창현 목사/ 협동총무: 이건호 목사, EM 총무: 피터 정 목사/ 회계: 김미숙 장로/ 여선교회(NKPW) 대표: 김정원 집사/ 남선교회(NKPM) 대표 김우식 장로가 각각 임명됐다.

4년만에 대면으로 만나는 총회 인지라 많은 참석자들(약 150명)의 기쁨에 찬 인사와 안부를 묻는 모습이, 특히 은퇴 목사님들의 모습이 더욱 활기차 보였다. 이번 총회를 hosting해 주신 형제교회의 hospitality는 상상을 넘는 다양한 식사 메뉴와 친절한 봉사, 음료와 간식 제공 등으로 매우 다채로웠다. 건강 식품으로 예술작품을 만들어서 먹는 눈이나 맛보는 입이 즐거웠고 다음 것이 기대되는 피로회복의 베품이었다. 교회와 호텔, 공항의 교통편을 부교역자들이 열심히 베풀어 주신것도 감사한 사랑의 hospitality 였다.

올 여름은 뜨겁게 시작하는듯 싶더니 비 오는 날이 많아 한여름의 무더위가 그리워지는 하루입니다. 에스더 여성회는 지난 3개월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활동을 하였고, 3가지 주요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3월26일 에스더 헌신예배



3월에는 에스더 헌신예배, 5월에는 어머니 주일 카네이션 준비와 70주년 한가족 예술제가 있었습니다.

동영상 제작을 위해 밤을 세워 준비해주신 김정연 회장님, 특송을 이끌어주신 유진선 회장님, 헌신예배를 함께해주신 에스더 자매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주일 카네이션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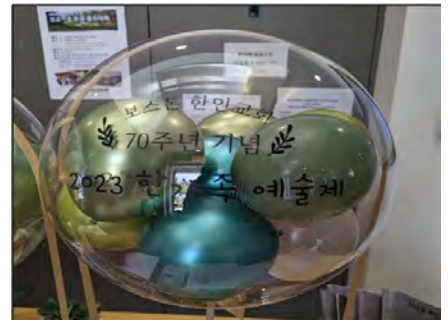
어머니주일(5월14일)에 사용할 카네이션 220개를 직접 만들어 전달해 드렸습니다.



70주년 한가족 예술제

5월 21일에 열렸던 70주년 기념 한가족 예술제는 감동적이고 멋진 무대로 가득 하였습니다. 예술제를 위하여 애써 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에스더 여러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2부 예배 전에 부엌에 오셔서 함께 다과 준비도 하고,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70 주년기념 한가족 예술제를 위하여 여러모로 애써 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섬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멋진 무대로 한가족 예술제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기 위해 준비하시고 수고하신 열 두 참가팀,

함께 기획부터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 간식을 준비해주신 마리아 여성회,

한가족 예술제 참여와 독려를 해 주시고 참가팀을 알려주신
교육 1부 박신영 장로님, 교육 2부 구용한 장로님, 교인 2부 최현구 장로님,

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회자를 맡아주시고 정말 멋지게 사회를 봐주신 김호영 형제님,

안 보이는 곳에서 마이크, 영상, 음향을 담당해주신
예배위원회 박신영 장로님, 방송팀 이석원 집사님, 채진병 집사님,

심사위원으로 수고해주신 이영길 목사님, 윤경문 목사님, 이요한 목사님, 김수영 목사님, 배경미 전도사님,

각 팀 무대 마이크 세팅과 진행을 도와주신 최현구 장로님, 이해승 장로님,

아이들에게 선물해 줄 풍선을 함께 붙여주신 이정규 장로님, 김한나 장로님, 이재익 집사님, 이명주 집사님,

식사준비와 서빙을 담당해주신 모든 장로님들,

2부 식사 기도를 해 주신 한승희 장로님,

테이블 세팅과 마무리를 도와 주신 집사회,

래플을 뽑아 주셔서 많은 교인 분들께 기쁨을 주신 많은 장로님들,

풍성한 선물과 래플 등을 나눌 수 있는 한가족 예술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신 70 주년 기념 위원장 한문수 장로님,

그리고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신 국내선교 담당 안성완 장로님,

곳곳에서 여러모로 함께 동역하며 섬긴 사랑하는 에스더 여성회 동역자들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보스톤한인교회로 하나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함께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답게 섬겨 주신 덕분에 저희 모두 한가족 예술제를 통해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2023.5.21 2023 에스더 여성회 올림

마리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3월 5일 세계 기도일을 3년만에 대면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렸습니다. 올 해는 대만 여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경문 목사님께서 대만 여성들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김경애 권사님께서 세계 기도일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멀리 살고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자매들의 삶을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권사회, 장로님들, 마리아, 에스더 여성회등 40여분이 참석하셔서 함께 주님께 간구하는 귀한 시간을 갖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날 헌금은 전액 세계기도일 본부로 보내지고 대만 여성들을 위해 쓰이게 될 것 입니다.



3월 26일은 마리아 여성회 헌신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날 총회 선교국 김소정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1:17-45, 누가복음 8:43-48 말씀의 “나도 사람이야”라는 재미있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셔서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약자를 위해 대변하고 헌신하는 성경 속의 여성들의 모습이 오늘 가정에서 엄마로 아내로 살아가는 우리 마리아 여성회 모습과 같은 모습임을 알게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딸로서 헌신과 봉사를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5월 21일 한가족 예술제의 식사 준비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에스더 여성회 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번 해에는 샌드위치를 만들었는데 부엌에 오랜 만에 많은 분들로 꽉차서 서로 도우며 이야기하며 웃으며 가르치며 배우며,,, 너무 소중한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봉사 뒤에는 더 큰 은혜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5월 14일 어머니 주일에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는 큰 마음을 갖는 마리아가 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였습니다.



권사회 소식

회장 김동숙 권사

어느새 2023년도 중반기에 수욱 들어와 있네요. 물잔에 물이 벌써 ㅎㅎ 임기 시작한지 몇 개월 간의 권사회의 활동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3월에는 세계 여성 기도회를 마리아와 함께 합동 예배로 드렸고

4월에는 홀리스 100인분 사랑의 도시락을 만들어 전달 하였으며

6월에는 상록 기도회 어르신들께 정성어린 점심 식사 대접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후반기에도 여러가지 활동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더위에 많이 고생하지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기도회 소식

회장 이재명 집사

3월 26일 상록기도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에서 홍유탉 성도님의 건강관 특강과 고문님으로 권복태 장로님, 회장에 이재명 집사님, 총무님은 윤헌자 집사님이 연임 선출되었습니다.

5월 행사는 집사회 봄청소할 때 잡채 제공, 5월6일 르호봇 연못 화단 꽃심기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21일 한 가족 예술제에 참가하여 아버지 우산상을 받았습니다.

6월4일 상록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특강 제목은 김화옥 집사님으로 “한국의 어제와 오늘” 입니다.

집사회

어린이 주일 행사

손효정 집사

5월 7일 제 2회 어린이주일 행사가 아이들의 웃음 소리와 함께 그 막을 올렸습니다.

집사회에서 썬플라워와 손을 잡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마음껏 웃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 하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와 준비 과정을 거쳐 진행하였습니다.

각 반 선생님들의 노련한 리더십 아래, 총 다섯개의 스테이션 (face painting, Bingo, bible quiz, Balloon making, Mother's Day craft)을 순서대로 돌아가며 즐겼습니다.

유년부 45분, 초등부 45분이 모자랄 만큼, 우리 친구들은 끝난 후에도 그 자리에 남아서 계속 그 여흥을 즐기고 싶어했습니다.

구디백과, 상품, 그리고 동물풍선...

혹시 뭐 하나라도 빠져 나갈까봐 꼭 쥘 작은 주먹, 하나라도 더 맞추기 위해 번쩍 번쩍 들던 손, 심각한 얼굴로 초 집중 하여 채 받던 페이스 페인팅, 신기한 듯 설레이는 눈으로 바라보던 동물 풍선 만들기...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았기를 바라며, 어느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 행사를 통해 교회가 재미있고, 신나는 경험을 하는 곳으로 여기는, 가장 위대한 선교가 되었을거라 믿습니다.





봄 대청소

이주원 집사

4월 15일 토요일 12시 30분에 약 30여명이 함께 모여서 간단히 점식식사 후에 교회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본당, ECC, 친교실, Community Hall, 교회 외부 및 화단 정리를 하였습니다. 청소는 3시 정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교회 내외부 청소를 함께하고 섬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던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한 지붕 삼(≒)세대, 함께 만두를 빚으며 소통해요!’

싱그러운 초록, 여름이다. ‘초록빛깔’ 마당 깊은 집의 주인이신 장양술 장로님께서 특유의 미소로 반겨주셨다. 뒤로 펼쳐진 잘 다듬어진 잔디에서 집 주인의 섬세함이 엿보였다. 마당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부엌일을 멈추시고 반갑게 맞아주신다. “수박이네! 무거운거 들고 오느라 힘들었지?” 모임 때 마다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 놓으시는 김정림 권사님께서서는 조그만 수고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다. 김정림 권사님의 진심이 담긴 칭찬은 아이들도 춤추게 한다.

북동 구역은 총 10가정이다. 아이들만 12명이다. 가장 어린이신 박 숙 이모님은 늘 아이들의 취향과 눈높이를 고려하신다. 김정림 권사님은 아이들을 위해 ‘산타 할머니’를 자처하셨다. 산타 할머니의 아이디어로 한 해 동안 각 가정에서 낸 회비로 모은 돈은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쓰여진다.

“젊은 사람들 없다가 와서 (좋아).. 애기들 많으니까.. 우리가 너무 좋은거야.. 애기들을 이빠하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애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싶어서..”

12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억하시는 산타 할머니의 꾸밈없는 말씀 마디마디에서 찢 애정이 푹푹 떨어진다.

“저의 아이에게 ‘할머니네 가자’ 고 말하면 ‘북동 할머니네?’ 라고 되물어요. 타국땅에서 장양술 장로님/김정림 권사님 댁은 (저희에게) 고향집 같아요. 새해 첫 모임에서 아이들이 어른들께 세배를 해요. 그리고 삼세대가 둘러앉아 만두를 빚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만두 빚은 법을 배워요. 조그마한 손들이 보탬이 되요. 한 다라이를 똑딱 만들거든요. “ 아이 엄마가 이어 말했다.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 위에서 아래로 흘러 흘러 큰 바다에서 만나서 하나가 되요. 서로의 섬김과 배려 그리고 존경과 사랑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북동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길 기도하고 있어요” 김동숙 권사님이 덧붙이신다.



북동 구역의 모태는 갈릴리 구역이다. 갈릴리 구역은 1993년에 북동 구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보스톤 북쪽 93번 도로 동쪽이 북동구역에 속했었다. 역대 구역장이신 김세철 장로님, 장양술 장로님, 이정우 집사님, 최정열 집사님, 김동숙 권사님의 계보를 이어 2023년 현재, 배광현 집사가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다.

“북동 구역의 특징이요? 북동은 삼세대가 모여요. 옛날을 되돌아보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북동이 되길 바랍니다. 윗 세대로부터 아이들이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대간의 갈등이 생기더라도 서로 이해하면서 주 안에서 풀어가야한다고 생각해요. 오해가 생겨도 서로 이해하고 풀어가야.. 구역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들기도 해요. 무엇보다 북동이 삼세대를 통해 ‘정’을 이어가는 한 식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몇 십년째 북동을 지키고 계신 장양술 장로님의 말씀이다. 말씀 후 잠시 자리를 비우셨다가 돌아오신 장로님의 손에는 누렇게 빛이 바랜 ‘대하’ 라는 구역 소식지가 들려 있었다. 이십 여년 전에 만들어진 소식지 안에서 옛날 북동 어른들의 초심을 만날 수 있었다.

실제로 북동은 ‘정’으로 뚝뚝 뭉쳐진 구역이다. 구역식구들의 크고 작은 경조사에 함께 울고 웃는다. 십시일반 모은 회비로 한 때는 해외선교를 하시는 지인을 서포트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지금의 ‘Homeless 쉼터봉사’의 중심에는 김동숙 권사님이 계신다.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를 돕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떠나는 식구들도 ‘정’으로 보낸다. 오는 7월에는 세훈이네(강모영/박선영 집사)가 한국으로 3년간 파견근무를 떠난다. 오늘 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진 밥상은 잠시 그들을 떠나보내는 북동 어른들의 ‘마음’ 이다.

석별의 정을 나누고 돌아서 나오는 손에는 싸주신 음식이 봉다리, 봉다리 마다 가득이다. 멀어져가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주신다. 예수님을 닮은 ‘희생’과 ‘사랑’에 눈과 마음이 촉촉해진다. 당분간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리라.....



보스톤한인교회의 살아있는 전설, 김한나/조준호 장로님 가정

한울타리 뉴스레터의 새로운 코너를 준비하면서, 과분하게도 제가 첫 주자로 당첨되었습니다.

우선 저의 소개를 하고 가족과 배경 이야기를 풀어볼려 합니다.

본인은 김한나(여)로 현재 KCB의 장로로 섬기고 있고, 올해는 휴무 기간을 맞이하여 열심히 자알 쉬려고 노력을 했지만 백수가 된 이후로 더 바쁘게 교회와 교단소속 단체 사역(전국 여성연합회 NKPW, 교단 한인교회 전국총회 NCKPC 총대)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올 초까지 홍보위원회를 맡아 섬겼으나 지금은 휴무! 여러분의 눈총 많이 ~ 받으며 사순절 묵상집과 한울타리 뉴스레터 원고를 독촉했던 장본인입니다. 주로 1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대를 섬기고 있고, 대원들을 위한 마을버스 운행도 하고 있답니다.

저는 부모님들 덕분에 일찌기 모태신앙인으로 성장했고, 고등학생 시절에는 HCCC라는 기독교단체에서 신앙의 기본적인 교육을 철저히 받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전도 생활을 열심히 잘 해야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

다. 아마도 그 때가 가장 뜨거운 나의 신앙의 초창기이자 전성기가 아니었나하는... 젊은 혈기였을지도... 그리고 1977년도에 부모님과 여동생과 함께 보스턴으로 이민을 왔고, 근교에서 대학생활을 하며 교회 청년부를 섬겼습니다. 마침 한국에서 유학온 조준호라는 청년과 임원으로 수고하다가 소위 '눈과 마음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조준호라는 청년은 '집사'로서 못 여학생들의 인기를 많이 누렸는데 즐지에 나이 어린 한나라는 여학생을 짝는 통에 저는 저대로 교회 언니들의 많은 눈총과 따돌림을 받기도 했구요.

그 당시에 청년부를 함께했던, 지금은 환갑이 넘은 아저씨가 된 교우님의 말에 의하면 'He was the best bachelor'라고 한답니다. ㅎㅎㅎ

가족의 이야기를 빠뜨릴 수는 없겠죠.

나의 가족의 우두머리 되신 아버지는 KCB초대 장로님 중 한분이셨던 김갑성 장로님이시구요. 교회 앞에 있는 교회 현판을 만드신 분이시죠. 어머니 이상구 권사님(95세)은 아직까지도 여러 교우님들의 '엄마' 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팬데믹 여파로 집에서만 생활하시던 관계로 이제는 몸이 많이 연약해 지셔서 거동도 힘드시지만 여전히 교인들의 안부와, 교회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 출석 점검을 저를 통해 하고 계시답니다. 물론 카톡을 통해 상록기도회원들과 날마다 소통하시구요. 저희 가족의 후손으로는 아들 둘(Samuel 성훈, Paul 명훈), 며느리 둘, 방금 한 돌이 지난 손자(Nathaniel 온유)와 몇달 후 태어날 두 번째 손자가 '조씨 가족'의 일원이랍니다.



최근 감사한 일들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손자 온유가 건강으로 인한 어려운 탄생시기를 무사히 지나 2달 전에 첫돌을 맞이하며 건강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걸음마를 시도하고 있구요.

더 감사한 것은 지난 연말부터 시작되었던 EM/BM 예배에 둘째 아들 Paul과 며느리 Ariel, 손자 온유까지 참석하고 있는 것 입니다. 사실 아들이 이곳에서 태어나 KCB에서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보내고, 유아세례와 견신례를 다 치렀지만 고등학교 이후로는 영어 예배/ 설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기에 저절로 교회와 멀어지게 되어 맘이 편치 않은 크나큰 기도 제목이었는데 드디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 것이죠.

이로서 저희 가족은 3세대 교회가 아닌 4세대 교회를 이룬셈이 된 것입니다. 만세~~~ 아직도 기도 제목 중 하나는 큰 아들 성훈이와 가족의 교회 복귀입니다. 언젠가 다시 신앙인으로서의 생활과 믿음의 실천을 하리라 굳게 믿고 기다림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장 은퇴하고 가끔 per diem으로 필요할 때 출근해 일을 돕고 있지만, 은퇴하면 시간이 널널하리라 기대했는데 오히려 나의 직장 은퇴를 기다렸다는 듯이 축하와 더불어 파도가 밀려오 듯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맡겨오고, 또 거절을 할만한 변명을 찾지 못해 결국 쉴 새 없는 백수/백조(여자는 백조라고 한다네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6년간의 보스톤한인교회의 생활을 하는동안 여러 부서에서 동역을 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큰 사역은 “보스톤한인교회 60년사” 를 출간한 일이 되겠네요. 2년간에 걸친 준비 작업이 엄청난 고생의 과정이긴 했으나 결국 기쁨이 되어 결실을 손에 짚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수고했던 많은 분들의 얼굴이 스쳐지나가네요. 여러 교우님들, 공동체의 나눔과 사랑과 봉사와 여러 사역이 지금의 “나, 한나”가 있게 해준 동력이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정든 보스톤한인교회를 떠나며

사랑하는 중앙 4구역 식구분들께

안녕하세요! 그 동안 중앙 4구역 구역장을 맡아온 안세진 집사입니다.

보스톤한인교회의 첫인상은 솔직히 세상적으로 잘나가고 잘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교수, 약사, 변호사, 엔지니어 기타 등등, 교수인 남편과는 어울리는데 지극히 서민적인 저와는 왠지 다른 another world의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처음 보는 젊은이에게도 존대말을 해주시고 한결같이 매너있게 대해주시는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구역장이 되고나서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에 안드는 부분도 많으셨을텐데 그런 저에게 항상 용기를 주시고 인내해 주신 구역식구분들 감사합니다. 구역장이 되고 나서 슬픈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제가 정말 구역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역장의 직책이 교회에 오래 출석하고 교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잘 알아야 하는데 저는 아예 모르다 보니 구역식구들께 공지를 드리면 대부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셨고 심지어 저의 미숙함으로 구역 식구분들이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주시거나 제가 모르게 뒤에서 더 많은 수고를 하신다는걸 수시로 느낄 때는 제가 구역장을 맡은게 과연 잘한 일인가 회의가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구역장을 시작한 동기는, 모두들 바쁘게 사회에서 일하시면서도 교회일에 헌신하는 어르신들을 보니, 여기서는 전업주부로 있는 제가 물리적 시간이 많고 또한 구역에서 어린 제가 당연히 도와드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순수하게 구역 식구들을 도와드리고 싶었다고 하더라도 저의 미숙함 때문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는것 같았습니다. 저의 이런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구역장님 이라고 해주시고 어떤 제안이라도 다 따라주셨던 구역 식구들 감사해요. 사람이 과분한 사랑을 받으면 받은 입장은 분명히 느끼게 되었는데 저는 일년도 안되는 기간에 구역 식구분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만의 착각일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와 남편 그리고 아이들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작년 8월 중순에 보스톤에 왔는데 어느덧 돌아갈 시간이 되었네요. 먼저 그동안 부족한 저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따라주셨던 구역 식구분들, 가끔은 무모하게 이런저런 시도도 하고 철없이 보였을 행동마저도 인내와 사랑으로 견뎌주신 구역 식구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내가 괜히 설치는 인상으로 남으면 어떡하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같텐데..

한때 이런 못난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역 식구분들이 또는 교인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는 내가 구역 식구분들을 얼마나 잘 알고 섬기고 있나에 포커스를 두고,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 구역 생활을 해왔어요. 제가 보며 겪어 본 구역식구분들의 모습은 다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물론 제가 여기 오래 살고 함께 오래 생활한다면 여러분께 간혹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드렸을수도 있고 모든것이 익숙해져 사소한것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맛있는 구역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자신있게 말씀 드리고 싶은건 우리 구역 식구 한분 한분 모두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하는 모습이 저에겐 참으로 인상깊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우리 구역식구분 모두 좋았어요. 싫은 분이 한분도 없었어요. 사실 전교회에는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의외로 보스톤에 자주 나타날수 있습니다. 긴장하세요~

제가 어느날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니는거 같아서 기억이 나는 어린 시절부터 계산을 해보니 인생에서 26번 이사를 했고 이번을 포함하면 27번.. 태어나 1년 6개월마다 이사를 다녔더라구요. 제 외할머니께서 너는 말띠라 역마살이 있어서 돌아다니는 팔자야 이런 말을 하셨었는데 엄청 듣기 싫구 마음에 안들었었어요. 웬지 할머니 말처럼 제 인생이 안주하지 못하고 늘 돌아다니는거 같아 속상했었습니다. 잦은 이사의 피로함으로 어느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떠돌고만 사나요? 제 남편까지 저를 만나 이렇게 떠돌면서 살게 되었나요?’ 그 때 하나님께서 내 영원한 처소를 하늘에 예비해 두셨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마음에 너무도 와 닿아서 펄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보스톤에서도 만났지만 아주 나중에는 한곳에서 다 만날 이웃이자 가족입니다.

불과 일년도 안된 사이지만 왠지 가족같이 친해진 우리 구역 식구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건 우리가 나중에 결국 만날 진짜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보스톤한인교회와 우리 중앙 4구역 식구들이 안식년에 받은 주님의 은혜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왠지 치열하게만 느끼지는 홍콩 생활에서 이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보스톤한인교회
전교인 여름 수양회

내 사랑 이민교회여!

수양회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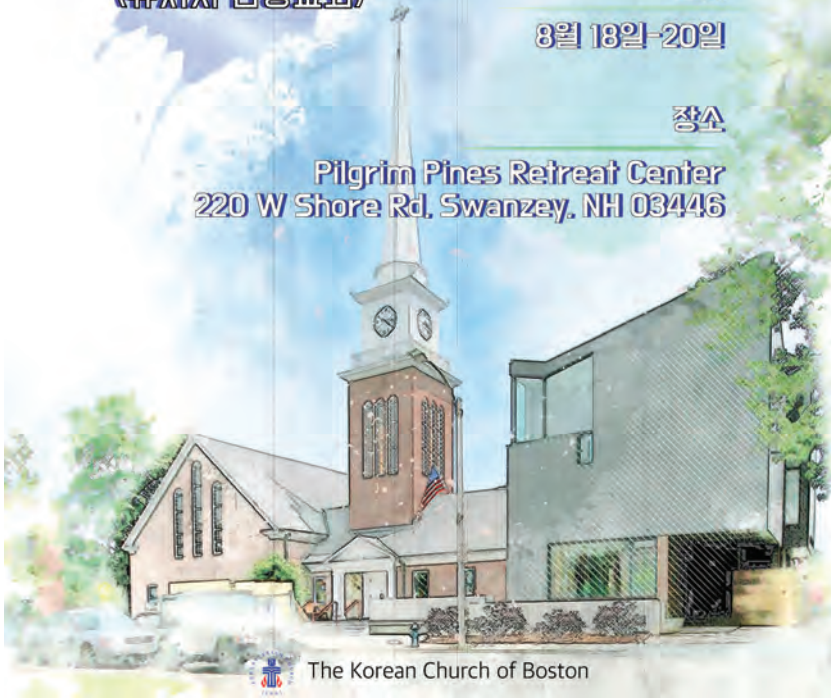
노승환 목사
(뉴저지 침양교회)

날짜

8월 18일-20일

장소

Pilgrim Pines Retreat Center
220 W Shore Rd. Swanzey, NH 03446



The Korean Church of Boston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T: 617-739-2663

F: 617-739-1366

www.kcboston.org

담임목사: 이 영 길